



Diocese of Newark

The Episcopal Church in Northern New Jersey

The Right Reverend Carlye J. Hughes, Bishop of Newark

PO Box 386, Livingston, NJ 07039 • 973-430-9976 • chughes@dioceseofnewark.org

2025년 1월 24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

마태복음 28:20b

여정의 동반자 여러분,

정말 대단한 한 주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예언자적 증언과 영향력 있는 사역을 기념하는 예배와 봉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워싱턴 교구의 마리안 버드 주교가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비를 간구하며 설교를 마친 기도회를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의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행사가 여러 곳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까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고, 그 중 일부는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요일에는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이 뉴어크의 한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구금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 저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누구이며 교회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명령에 대한 기독교인의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권장 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구의 평신도와 성직자는 지지 정당을 포함해 여러 면에서 다양합니다. 이번 주에도 선거 직후 우리가 대회에 모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요일 아침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이번 주에 일어난 변화로 인해 기뻐하고 흥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반응이 이번 주일 교회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경험해야 할 것을 형성할 것입니다.

서로의 상호작용에서 세례의 약속, 특히 이 두 가지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섬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정치적 담론에서 실망스러운 사실은 다른 사람을 해롭고 무시하며 비인간적인 언어와 어조로 말함으로써 생기는 편협함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거친 정치적 논쟁은 다양한 교회, 가족, 친구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지만, 교회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 있는 동안 당파적인 정치적 관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역할에 온전히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일에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인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커피 타임을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게 하세요. 우리는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듯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실천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정의와 평화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가정, 학교, 이웃, 직장에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휴즈 주교 드림